

□ 농기계 순회수리로 바쁜 고성군농업기술센터 한정권씨

“힘들어도 주민들 ‘고맙다’ 인사에 보람”

“시동이 걸리지 않던 경운기 등 농기계가 ‘부릉부릉’ 소리를 내며 작동될 때면, 주민들에게 도움을 줬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낍니다.”

지난 7일부터 농기계 순회수리 사업을 펼치고 있는 고성군농업기술센터 농기계관리팀 한정권씨(37세)는 요즘 무척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5월 10일을 전후해 이뤄지는 모내기 전에 이앙기 수리작업을 모두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당초 3월 1일부터 시작하기로 한 것이 는 때문에 일주일 늦춰져 일정을 모두 소화하기가 빠듯하다.

고성군농업기술센터 농기계수리팀은 1개반에 4명씩 2개반으로 구성돼, 3월부터 11월까지 총 250회 마을을 순회한다. 고장난 농기계를 수리해주고, 자가수리 능력 향상 교육도 펼치고 있다.

1반에 속해 있는 한씨는 아침 8시30분쯤 출근해 반원들과 함께 농기계 수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들을 점검하고 사무실을 출발, 오전 9시30분부터 본격적

인 작업을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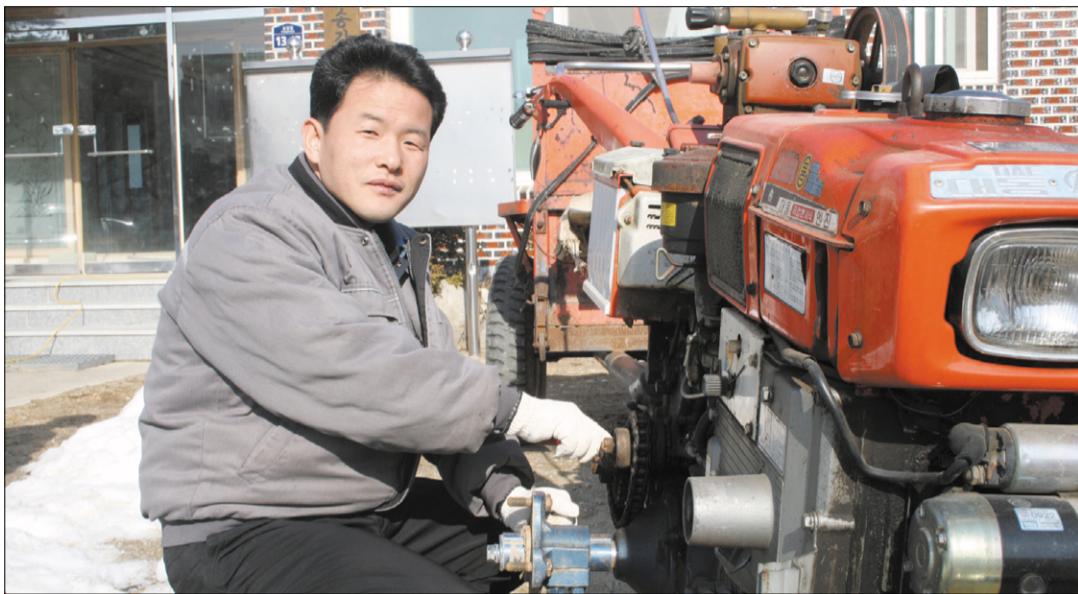
“아직 아침나절에는 날씨가 쌀쌀하지만, 마을 어르신들이 따뜻한 커피를 내주시면서 ‘잘 부탁한다’고 반겨주시니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하곤 합니다.”

농기계수리팀은 명파리처럼 큰 마을에는 2개반이 함께 들어가 하루 종일 작업을 한다. 작은 마을은 1개반씩 들어가 오후 3시경쯤 작업을 마무리해 그나마 여유가 있다.

주민들이 가장 많이 수리를 의뢰하는 농기계는 경운기지만, 모내기철을 앞 둔 요즘은 이앙기 수리도 많다. 트랙터, 비료살포기, 동력분무기 등도 고쳐준다.

한씨는 “이앙기는 식부(모를 심는 손에 해당하는 부분)가 망가지는 경우가 가장 많다”며 “모내기철에만 일주일가량 사용하고 연중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손볼 곳이 많다”고 했다.

한씨는 농기계 수리와 함께 기계 관리와 안전한 사용법에 대해서도 지도하고 있다. 이앙기 작업이 끝날 무렵이면 연료를 빼놓고,



고성군농업기술센터 농기계수리팀 한정권씨가 지난 10일 거진읍 송강리 마을회관에서 경운기를 수리하고 있다.

경운기를 몰 때는 항상 안전운전을 하라고 당부한다.

농기계팀원들은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지만, 점심식사를 할 때만큼은 즐겁다고 한다. 대부분의 마을에서 한 해 농사를 짓는 데 큰 도움을 준 수리팀들에게 정성껏 마련한 점심을 대접해주기 때문이다.

한씨는 “작업을 마칠 때쯤이면 고맙다고 손을 잡아주시는 어르신들이 많다”며 “그럴 때마다 이 일을 선택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며 작은 눈으로 환하게 웃었다.

죽왕면 구성리 출신으로 초등학교 시절 대진으로 이사온 한씨는 대진고등학교 3학년 때 강릉

직업학교에서 기술을 익혀 지난 1997년 9월 기능직 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올해로 15년째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는 아직 총각이다. 동료들은 “정권씨가 장가갈 수 있도록 참한 색시가 있으면 소개 좀 해 달라”고 귀띔했다.

최광호 기자

고성군번영회 임원총회 개최



지난 7일 열린 고성군번영회 임원총회 모습.

고성군 번영회(회장 이영일)는 지난 7일 오후 5개 읍·면 번영회 관계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성을 청우가든에서 임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2010년도 결산 보고 및 2011년 사업계획(안)이 의결됐으며, 기타안건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이영일 회장은 “그동안 지역민들이 도와준 덕분에 많은 일들이 이뤄졌다”며 “우리 임원들은 고성발전을 위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승근 기자

영동OA사무기

- 디지털복사기 □소모품판매
- 잉크젯·레이저 프린터 □팩스
- 복합기렌탈 □LCD프로젝터

681-7607, 010-3179-7607

유암문화재단 장학금 전달

재단법인 유암문화재단 정문헌 이사장(사진)은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고성-속초-양양지역 9개 고등학교 학생 57명에게 각 30만원씩 모두 1천7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유암문화재단은 1982년

유암 정재철 전 국회의원이 학술 및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한 재단이다.

유암문화재단은 이번 장학금까지 합쳐 총 1,509명의 학생에게 모두 4억7천6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최광호 기자



“화합과 소통으로 내실있는 협회 운영”

고성군골프협회 신임 함인식 회장 추대

고성군골프협회는 지난 25일 오전 11시 5개 클럽 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성군골프협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함인식씨(사진)가 고성군골프협회장에 합의를 추대됐다.

함인식 신임 회장은 인사말에서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 지역 경기마저 안 좋은 이때 협회 회원과 혼연일체가 돼 모든 일에 화합과 소통이 잘



이뤄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저비용으로 고효율적 효

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내실 있게 모임을 이끌어 가겠다”고 했다.

함 회장은 고성출신으로 고성중고와 인천시립대학을 졸업했다.

고성군체육회 사무국장, 고성군 번영회 사무국장, 고성 라이온스클럽 회장, 고성골프협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고성중고 총동문회 수석 부회장과 거성직물 대표를 맡고 있다. 박승근 기자